

기자가 된 문학소녀 “맘껏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하다”



제1부-희망 찾기
제2 인생 펼쳐가는 송정실씨

식량난에 학업 포기하고 취업 전선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가 죽을 고비
한국서 아들 낳고 대학원 생활 만끽
전국 탈북민 사연 책으로 엮고 싶어

“아버이 살아 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
이하리 /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북한이탈주민 송정실(여·38)씨가 인민(초등)학교 다닐 적 아
버지에게서 배운 시다. 북한에는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묘사한
시들만 있는 지 알았는데, 아니었다. 선조들의 옛시도 배운단다.
이 조그마한 일에서 탈북민도 우리 동포요, 한민족이라는 사실
을 깨닫게 된다.

이 시는 송강 정철의 훈민가(訓民歌) 일부다. 정철이 강원도관
찰사로 재직할 때 백성을 교화·교유·계몽하고자 지은 시조다.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며, 효도하고자 할 때에 이미 부모를 여
의고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인 ‘풍수지
탄(風樹之嘆)’을 표현했다.

◇시를 좋아한 문학소녀

정실씨는 1979년 6월 두만강 연안인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
났다. 시를 좋아하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문학소녀의 꿈을 키
웠다.

인민학교에서 고등중학교까지 그는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다. 집에서 학교에서나 내세울 건 공부밖에 없었다고
한다. 3남매 중 둘째딸인 탓에 할머니는 언니만 예뻐했다. 남동
생은 아들이라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학교에서는 노동당원이 아
닌 집안이다보니 따돌림 당하기 일쑤였다. 오기가 발동했다. 다
른 것은 몰라도 공부만큼은 뒤지지 않겠다는 오기. 그래서 악착
같이 공부했다. 표창장도 많이 받았다.

고등중학교 시절 그는 문학소녀가 꿈이었다. 선생님은 그에게
교사가 되라고 했다. 문학교사가 돼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쓰
면 되겠다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꿈을 허용하지 않았다. 교원대에 가지 못
한 것이다. 전문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았지만 대학 진학은 할 수
없었다. 온 나라가 식량난에 허덕이던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을 포기하고, 철도에서 1년간 경리로 일했다. 회령은 중국
과 가깝다보니 정보가 많았다. 어느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중
국에 가서 돈을 벌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중국에서 한 달
만 돈을 벌면 북한에서 1년 먹을 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은 다른 곳에 행방(보따리장사)을 떠난 것으로 만들어 놓겠
다고 했다. 솔깃했다.

그렇게 19살 철 없는 소녀는 두만강을 건넜다. 고향과의 작별
이었고, 부모와의 이별이었다.

◇탈북과 함께 찾아온 인신매매

1998년 10월 두만강은 차디쳤다. “돈을 벌리라” 마음먹고 차
디찬 두만강을 건넜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은 북한에서보다 더욱
참혹했다. 인신매매였다. 사람이 아닌 물건이 돼 중국 시골로 팔
려간 것이다. 사방이 산으로 뒤덮인 연변의 한 시골이었다. 앞이
갑갑했다. 남편은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는 장애인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다. 집은 오지게 가난했
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길 정도였다. 밤낮으로 눈발에
서 일해야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건 복숭의 두려움이었다. 중국 공안
의 눈을 피해 살아야 했다. 비닐하우스·옥수수창고에서 잠들기
일쑤였다. 그렇게 11년을 살았다.

몸은 가난과 질병으로 망신장이자 됐다. 마음은 주정뱅이 남
편 때문에 동동 떠다녔다. 북한을 떠날때 58kg이었던 몸무게는



송정실씨는 어릴 적 북한에서 썼던 ‘문학소녀의 꿈’을 한국에서 ‘동포사랑’ 기자 활동을 하며 실현해가고 있다. 정실씨는 “딸을 낳고, 아들을 데려오고, 대학 공부를 하게 해준 대한민국에 감사하다”면서 “후배들도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하라”고 조언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8kg로 줄어들었다. 자칫대로 지친 그는 자옥같은 그 집에서 벗
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어느날, 그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섰다. 한국을 향해서. 한국행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
이다.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죽음이다. 3개국을 넘고 5
개 국역을 거쳐 2009년 12월 한국에 도착했다.

◇차별·냉대 받고 기자가 되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똑같은 언
어이지만, 섞여 쓰는 외래어 탓에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생
활환경도 북한·중국과 너무 달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외로
웠다. 우울했다.

하녀를 나오면서 받은 정착금은 고스란히 브로커에게 넘겼
다. 그의 손에는 달랑 20만원이 남았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
였다. 광주에 온지 사흘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삼겹살이
주매뉴인 식당이었다. 알바 첫날 정실씨를 본 주인은 “너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다. 이 나라 세금으로 들어온 거지다”라고 냉대
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대구도 못했다. 자신이 생각하
도 ‘거지’였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5
년 후 당당하게 이 식당에 다시 오겠다며. 그리고 5년이 지난,
2015년 6월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이 식당에서 고기를 구웠다.
정실씨는 제대로 정착하려면 배워야 했다. 밤에는 아르바이트

를 하고, 낮에는 컴퓨터학원에서 전산회계와 컴퓨터 활용을 익
혔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알게 모르게 차별·냉대를 받았다. 말
투 때문에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많이 받았다. 북한에서 왔다
고 하면 두번 세번 위 아래로 훑어보는 것이다. 아마도 뽀이 어디
에 있나 보았는지도 모르겠다. 북한 사람은 뽀이 있다고 배웠다
니 말이다.

그러다가 같은 처지의 북한 남자를 만났다. 결혼했고 임신했
다. 임신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중국에서 낳은 아들 생각 때
문이었다.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남편이 아들을 데려오자고 했
다. 그리고 3년 만에 아들을 데려왔다.

정실씨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해냈다. 문턱에도 못가본 대학
공부를 시작했다. 서영대를 거쳐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했고, 지금은 광주여대 사회개발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
공하고 있다.

문학소녀가 되고 싶었던 꿈은 지금 이뤄지고 있다. 남북하나재
단에서 발간하는 ‘동포사랑’과 ‘착한공간’의 취재기자다. 탈북민
들의 드라마틱한 삶을 글로 쓴다. 그는 새로운 꿈을 쫓는다. 전국을
발로 뛰며 취재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는 것이다.

정실씨는 후배 탈북민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하면 좋
겠다”고 조언했다. 공부를 하면서 이곳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북한에서의 인권 경험

(단위: %)

- 공개처형 목격 경험

있었다 64	없었다 36
--------	--------

- 개인의 사생활 보호

있었다 14.4	없었다 85.6
----------	----------

-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경험

있었다 35	없었다 65
--------	--------

- 체제에 대한 불만 및 정치 비판 경험

있었다 19.8	없었다 80.2
----------	----------

- 남녀 평등 보장

있었다 22.9	없었다 77.1
----------	----------

“북 출신이라 차별 당해” 45%

30%는 아무런 대처 못해

탈북민 2명 중 1명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
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가 인하대 산학협
력단에 의뢰해 국내 거주 만19세 이상 탈북민 480명을 대상
으로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45.4%
가 북한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적이 있다고 응
답했다. 이들은 출신지역 외에도 학력·학벌, 비정규직, 나
이, 경제적 지위 등으로도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다.

탈북민에게 차별을 가하는 집단은 일반 시민(20.6%), 직
장 상사(17.9%), 직장 동료(16.5%)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탈북민 10명 중 3명은 이같은 차별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겪었을 때 행동
에 대해 응답자 중 27.7%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다. ‘시민단체(또는 탈북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6.2%.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3.
6%에 그쳤다. ‘경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국가
인권위원회에 상담·진정했다’는 응답도 각각 11.3%와 8.
7%에 불과했다.

다만, 탈북민들은 대체로 남한에서의 인권은 존중된다(매
우 존중 13.3%, 다소 존중 64.4%)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탈북민 4명 중 3명(74.4%)은 북한에서 ‘인권’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사생활 보호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85.6%가 ‘아
니’라고 답했고,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경험도 65%가
‘없다’고 답했다. 연좌죄(가축이 저지른 죄에 대한 피해 경
험)를 묻는 경험도 71.3%가 ‘없다’고 했다.

반면, 공개 처형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4%가
‘그렇다’, 고문이나 구타를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6%
가 ‘그렇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탈북민만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조사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거주 탈북민
은 3만명을 넘어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탈북민 10명 중 7명 태국 통해 입국

동기는 생활고·자유에 대한 동경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탈북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태국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사무소)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가 태국을
경유해 입국했다. 이어 라오스와 중국 순이었다.

탈북 동기는 생활고(56%)가 가장 많았고, 자유에 대한 동
경이 뒤를 이었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노동자·농장원이 48%로 절반 가까이
됐다.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3만391명으
로, 올해 들어서는 183명이 입국했다.

북한 탈출 뒤 제3국 체류 기간은 짧아지는 추세다. 제3국
체류 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처음부터 한국 입국을 위해
탈북한 경우가 많다.

정부는 한국행을 기다리며 제3국에 수용된 탈북민에 대
해서도 해당국 정부와의 협력하에 현지 공관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직원모집 객실청소, 주방찬모 (출퇴근 및 숙식가능)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